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18~21)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의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일곱교회 중 가장 크게 책망하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아니하므로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부요하다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라 할지라도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 깨우쳐 주며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 정금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은 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 9:29). 입술로만 ‘믿습니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며, 이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금 또는 정금에 비유합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왕상 18장).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려 마침내 큰 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일곱 번까지 올라가 구름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했는데 이는 끝까지 믿고 기도해 응답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일곱 번째에 응답이 없었다 해도 엘리야 선지자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믿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정금과 같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불로 단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믿음 역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죄

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절제할 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2.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요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검은 마음을 벗고 진리의 하얀 마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의의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검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와 어둠을 발견치 못하고 사람의 본분을 잃은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벌거벗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차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태를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해 진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실제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을 진리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짝하지 않으며, 어찌하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어둠을 발견해 진리로 변화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됩니다.

3.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시 한 번 그릇된 신앙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곧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는데, 이는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염려해 매를 들지 못한다면 진정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요시는 길

공항
디지털단지 오거리
7호선 남구로역
한신 IT타워
하이랜드 1차
구로디지털단지 우체국
안향
시흥대로
사당
외환은행
E-마포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관·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